

민주당 vs 安신당 민심잡기 경쟁 ... 내일 광주 정치열기 ‘후끈’

안철수 의원 광주서 신당 방향·목표 설명 신당행 꿈꾸는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 민주당 추미애 의원 북 콘서트 열고 강운태 시장·박준영 지사 기자회견담회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오는 26일 광주에서 민심잡기 경쟁에 나선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본격적 움직임이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양 정치세력의 중심 인물인 안철수 의원과 박준영 지사가 광주를 방문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행사는 창당을 목적으로 한 '신당' 설명회라는 점에서 이날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행을 택하려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 측은 새정치추진위원회는 26일 광주에서 '안철수 신당' 설명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안철수 의원이 직접 참석한다.

설명회에는 '안철수 신당'행을 꿈꾸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설명회에 앞서 광주 NGO센터에서 광주지역 언론인들과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안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신당의 방향과 정치적 목표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안 의원은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시민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한 뒤 상영하고, 윤장현, 김호석, 박호근, 이계안 공동위원장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민주당 정통성'을 주

장하는 추미애 의원이 이날 광주를 방문한다.

추 의원은 이날 조선대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리는 자신의 북 콘서트 '물러서지 않는 진심'에 앞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 안철수 신당과 박근혜 정부, 강한 야권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광주·전남지역 민에 대한 애정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날 송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강 시장과 박 지사는 주로 시장과 도정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안철수 신당은 야권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민주당 중심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안철수 신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노선 경쟁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내년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강 시장과 대립하는 이용섭 의원은 호남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의 한 관계자는 "26일을 기점으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후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안철수 신당은 야권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민주당 중심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안철수 신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노선 경쟁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내년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강 시장과 대립하는 이용섭 의원은 호남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의 한 관계자는 "26일을 기점으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후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안철수 신당은 야권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민주당 중심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안철수 신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노선 경쟁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내년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강 시장과 대립하는 이용섭 의원은 호남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의 한 관계자는 "26일을 기점으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후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안철수 신당은 야권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민주당 중심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안철수 신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노선 경쟁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내년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강 시장과 대립하는 이용섭 의원은 호남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의 한 관계자는 "26일을 기점으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후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무죄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지방선거는 ‘朴 불통정치’에 대한 중간심판”

민주 김한길 대표, 지방선거 기획단 토론회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양승조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4년 지방선거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책과 전략을 모색했다.

양 단장은 이날 "2014 지방선거는 민주당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선거"라고 전제한 뒤 "승리를 향한 구도와 인물 그리고 이슈 파이팅 전략이 치밀하게 맞물려 준비돼야 한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복지공약 후퇴·경기 악화 등에 따른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정권심판 구도 형성 ▲박근혜정권의 중간심판 도구로서 민주당의 국민신뢰 획득 가능성 ▲혁신어젠다 선점 및 정치개혁 핵심에 대한 과감한 접근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양 단장은 또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신당 세력과 경쟁·협력 관계 설정의 근거엔 혁신 경쟁에서 시작돼 혁신 경쟁으로 끝이 난다는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혁신으로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 구도를 마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대한 중간심판이 될 것"이라면서 "대선의 연정권이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대해 국민이 평가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도 집권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이 누릴

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지방선거기획단은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폐지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20% 확대 ▲국회의원 징계 관련 윤리특위 구성 시 시민 절반 이상 참여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선거구 획정 독립기구 이전 등을 포함한 18대 대선 당시 정치개혁안에 대한 지속적·선제적 제안과 법제화 주도권 확보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중도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와 진보라는 과거의 선택지를 벗어나 제3의 방안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kpark@kwangju.co.kr

안철수 “원격의료·영리화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

긴급 토론회 개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4일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가 최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마련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 의료 서비스 규제책을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대책을 “의료 영리화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의료 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원격 의료는 오진

의 위험성과 책임 소지 등에서 큰 위험이 따른다”며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원격의료 대상을 위험성이 낮은 환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성폭력·가정폭력 환자 등으로,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특히 만성질환을 앓는 분은 어르신도 많다 이분들께는 원격진료가 아니라 방문진료가 맞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의료 영리화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의료의 공공성보다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저소득 계층 환자는 거부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금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다”면서 “의료영리화가 이 사각지대를 넓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이 ‘원격의료 및 보건 의료정책과장이 ‘원격의료 및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 대책’에 대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의료서비스 규제 개선 정책 검토안’에 대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전남지사 출마냐 당권 도전이냐

‘저축銀 무죄’ 날개 단 박지원 향후 정치 행보 주목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24일 재판부로부터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2, 3심이 남아 있지만 11년째 이어온 검찰과의 필긴 ‘악연’ 끝에 자신을 또다시 옥죄었던 비리 혐의에서 벗어나 결백함을 입증함으로써 정치적 명예회복을 이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검찰수사와 재판이 박 전 원내대표의 정치활동을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무죄 선고는 그의 정치행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민과 정치권의 관심은 박 전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서느냐, 아니면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호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노무현정부 대북송금 특검에서 4~5년 고초를 겪었고 이명

박정부에서 한화, 태광, C&, 고려조선, 양경속씨, 그리고 저축은행까지 6번의 고초를 겪었다”며 “그때마다 검찰은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명박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저는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저와 11년의 악연을 오늘로 끊고 싶다”며 “저는 민주당과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전 원내대표는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평상시처럼 원내 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호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원내대표가 우선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호는 호남정치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박 전 원내대표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왕성히 활동, 호남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호남정치권의 바람에 기인하고 있다. 결심들은 차기 전남대회에서 대선후보급 인사들이 일제히 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저와 11년의 악연을 오늘로 끊고 싶다”며 “저는 민주당과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전 원내대표는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평상시처럼 원내 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호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원내대표가 우선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노무현정부 대북송금 특검에서 4~5년 고초를 겪었고 이명

이호는 호남정치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박 전 원내대표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왕성히 활동, 호남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호남정치권의 바람에 기인하고 있다. 결심들은 차기 전남대회에서 대선후보급 인사들이 일제히 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겨울방학때 무안공항 떠나는 캄보디아(시엠립)지하! BBC선정축기 전에꼭 가봐야할곳

무안- 캄보디아 (시엠립지하)
기간2014.1/01~2/26(매주수요일토요일 출발)

3박4일 649,000~
3박5일 94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기사/가이드 팁(40), 성금저지

무안-베트남 캄보디아 전세기

겨울방학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절경과 찬란한 역사와의 만남!
(12/27~1/21, 단 6회) ※건교부 인가 조건

베트남, 캄보디아 4박6일 **899,000**
※불포함: 개인경비, 유류할증료, 기사/가이드 팁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별장으로 GO, GO!!

겨울방학 가족과함께 일본히타 조이펜션으로 온천 여행

7박8일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빌리지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카멜리아 299,000
출발일 1/4,7,8,9,11,15,18,21,25
※불포함 사항: TAX, 유류할증료, 국내수송

7박8일 선착순 20명 특급 전통 료칸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카멜리아 399,000
출발일 1/4,7,8,9,11,15,18,21,25
※불포함 사항: TAX, 유류할증료, 국내수송비

설연휴 떠나는 일본 규슈 3박 4일(특급 전통료칸 숙박!!)

카멜리아 59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W30,000)

내맘대로 자유투어 일본 규슈 3박4일

카멜리아 199,000~
출발일 1/4,7,8,9,11,15,18,21,25

겨울방학에 무안에서 떠나는 방콕,파타야 여행

12/31~1/2일 연말연시 일본으로 떠나는 불꽃놀이!!!

꽃놀이 + 후쿠오카 시내 관광 3일 **229,000**
※불포함사항: 유류세(W30,000), 기사/가이드 팁 (¥2,000), 성실 업그레이드비용

꽃놀이 + 야마구치 시내 관광 3일 **249,000**
※불포함사항: 유류세(W30,000), 기사/가이드 팁 (¥2,000), 성실 업그레이드비용

오끼나와 3박4일 **899,000**
출발일: 1/9, 16, 23, 2/6, 13, 20, 27

오끼나와 가족여행 **1,199,000**
출발일 1/9,16,23, 2/6,13,20,27
▶1/30(구정연휴)
※불포함 1.유류할증료(54,000) *출발전 입금 부탁드립니다.
2.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3,000) *현지에서 현화 지불 부탁드립니다.

겨울방학 중국으로 떠나는 여행!!

무안-북경 올포함 5성급 호텔 숙박 4일 **569,000**
출발일: 1차 1/21, 2차 2/04, 3차 2/11

무안-북경 관광 + 태향산 동양의 그랜드캐년 5일 **789,000**
※불포함: 개인적인 경비, 가이드 기사 팁

인천-위해 힐링 휴양 온천 4일 **499,000**
※불포함: 중국 비자비, 현지식사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요 표시, 광고사한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98다 2003-1호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저보금 가입(예외상용: 1억원, 국내상품 5만원), 관광진흥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저보금 가입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료,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

국내여행/섬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W10,000), 석식, 유류할증료(W24,200)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W10,000),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홍도, 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34,000~**
모형사항: ALL포함(항공접수기준)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